

2027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 N제

연계 과 광

- 최신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한 비연계 문제 40 SET
- 수능 국어 문학 비연계 + EBS 연계 대비 고난도 모의고사 4회분



제작 문항
213제

박광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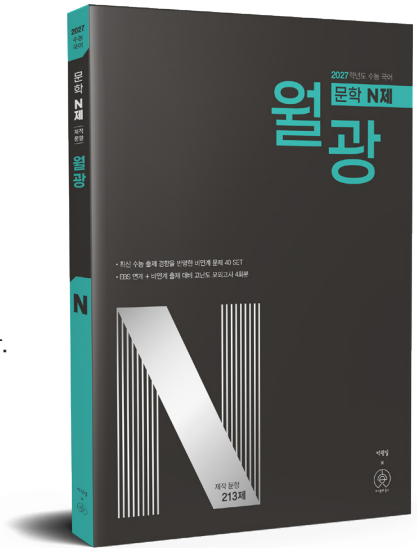
도서출판 문수

2027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 고득점을 위해,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엄선한 문학 N제 『월광』을 소개합니다.

2026학년도 수능 문학 영역에서는 총 8개의 작품 중 3개 작품만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연계율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따라서 2027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을 완벽하게 대비하려면 **연계와 비연계 출제를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월광』은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작품으로 구성된 **수능형 제작 문항**을 제공하여 **비연계 대비 학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수능 문학 출제 경향을 반영한 **고난도 문학 모의고사**를 수록하여 **연계와 비연계 출제를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실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NTRO

수능 국어 문학 비연계 · 연계 출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틀리기어
 EBS 수능 교재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연계율이 50%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절반 정도는 연계 교재에서 접하지 않은 낯선 내용이 출제된다는 말이다. 연계 작품은 학습해야 할 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최근회 공부하면 되지만, 비연계 작품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익숙한 작품이 출제되기를 기대하며 굳이 알길 수인은 없다. 최근 5년간 수능 국어 문학에 출제된 작품을 분석해 보고 비연계 · 연계 문학 작품 출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학습 방향을 알아보자.

1 2022학년도~2026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 출제 작품

연도	비연계 작품		연계 작품	
	갈래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2026학년도	가비 이시영 「그리움」 비유 교재 「당-유-그림」 이태		비연계 「토끼는 못지」 비연계 「토끼는 못지」	연계 「수궁가」 연계 「수궁가」

INTRO
수능 국어 문학 비연계 · 연계 대비법

- ▶ 최근 5개년의 수능 국어 문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EBS 연계와 비연계 출제 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최근 5개년 수능 국어 문학에서 정답률이 낮았던 킬러 문항을 분석하여, 고득점 확보에 필요한 비연계 · 연계 출제 대비 학습법을 직관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차 & 학습 계획표

		내용	페이지		학습 CHECK	
			문제	해설		
1 주차	PART 1	월	SET 1 (가) 신동엽, 「향아」 / (나) 백석, 「여우난골죽」 SET 2 (가) 조지훈, 「흙을 만지며」 / (나) 정호승, 「운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다)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P.032 P.034	P.02 P.03	☐
		화	SET 1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오」 SET 2 (가) 이광명, 「북찬가」 / (나) 위백규, 「농가 구장」	P.038 P.040	P.05 P.06	
		수	SET 1 작자 미상, 「숙향전」 SET 2 (가) 정지용, 「유리창 1」 / (나) 김영랑, 「독을 차고」	P.044 P.046	P.08 P.10	☐
		목	SET 1 이항, 「도산십이곡」 SET 2 윤희길, 「완장」	P.048 P.050	P.11 P.12	
		금	SET 1 허균, 「홍길동전」 SET 2 (가) 이기철, 「나무의 옷」 / (나) 이시영, 「사시에 대하여」 / (다) 이어령, 「폭포와 분수」	P.054 P.056	P.13 P.15	☐
PART 2	주말	월광 문학 모의고사 1회차 1-4 작자 미상, 「옥단춘전」 <수특 출제 작품> 5-9 (가) 박남수, 「종소리」 / (나)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수특 출제 작품> / (다) 이익, 「할계전」 10-13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수특 출제 작가> 14-17 (가) 작자 미상, 「유산가」 <수특 출제 작품> / (나) 송익필, 「산중」 / (다) 이정보, 「대장부 공성실패하여～」 <수특 출제 작가>	P.145	P.60	☐	

		내용	페이지		학습 CHECK	
			문제	해설		
2 주차	PART 1	월	SET 1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SET 2 (가) 오장환, 「성탄제」 / (나) 김기택, 「소 2」	P.060 P.064	P.18 P.19	☐
		화	SET 1 (가) 김현승,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 (나) 문정희, 「성에 꽃」 / (다) 정진홍, 「해가 뜰 적에는」 SET 2 (가) 신희, 「넋그에 히오라바～」 / (나) 작자 미상, 「곰병이 매암이 되야～」	P.066 P.070	P.20 P.22	
		수	SET 1 염상섭, 「삼대」 SET 2 (가) 권필, 「주생전」 / (나) 조위한, 「최척전」	P.072 P.074	P.23 P.24	☐
		목	SET 1 (가) 박목월, 「산도화 1」 / (나)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SET 2 (가) 박경리, 「토지」 / (나) 박경리 원작, 이흥구 · 김명호 · 이해선 각색, 「토지」	P.078 P.080	P.26 P.27	
		금	SET 1 (가) 이이, 「고산구곡가」 / (나) 작자 미상, 「사제가」 SET 2 최인훈, 「회색인」	P.084 P.086	P.28 P.29	☐
PART 2	주말	월광 문학 모의고사 2회차 1-4 최일남, 「서울 사람들」 <수특 출제 작가> 5-10 (가)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수특 출제 작가> / (나) 문태준, 「자루」 <수특 출제 작가> / (다) 허세욱, 「땅거미」 11-14 (가) 작자 미상,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 (나) 작자 미상, 「금방울전」 <수특 출제 작품> 15-17 (가) 김창현, 「산민」 <수특 출제 작품> / (나) 정철, 「관동별곡」	P.153	P.67	☐	

	내용	페이지		학습 CHECK		
		문제	해설			
3 주차	PART 1	월	SET 1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SET 2 (가) 작자 미상, 「이별요」 / (나) 김광욱, 「울리유곡」	P.090 P.092	P.31 P.32	□
		화	SET 1 작자 미상, 「조웅전」 SET 2 신계영, 「월선한십육경가」	P.094 P.098	P.33 P.34	
		수	SET 1 (가) 이수익, 「방울 소리」 / (나) 객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SET 2 (가) 조우인, 「자도사」 / (나) 이첨, 「원수」	P.100 P.102	P.35 P.37	
		목	SET 1 작자 미상, 「전우치전」 SET 2 채만식, 「소망」	P.106 P.108	P.39 P.39	
		금	SET 1 (가) 이상, 「거울」 / (나) 이근삼, 「원고지」 SET 2 (가) 박두진, 「설악부」 / (나) 이권청, 「하루」	P.110 P.114	P.41 P.42	
	PART 2	주말	월광 문학 모의고사 3회차 1-6 (가) 허난설헌, 「기녀반」 <수특 출제 작가> / (나) 조우인, 「매호별곡」 / (다) 심낙수, 「애오현기」 7-10 이문구, 「우리 동네 황씨」 <수특 출제 작가> 11-13 작자 미상, 「임진록」 <수특 출제 작품> 14-17 (가) 김규동, 「나비와 광장」 <수특 출제 작품> / (나) 황금찬, 「바위와 나비」	P.163	P.74	□

	내용	페이지		학습 CHECK		
		문제	해설			
4 주차	PART 1	월	SET 1 (가) 안동 권씨, 「반초화전가」 / (나)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SET 2 최명익, 「장삼이사」	P.116 P.118	P.44 P.45	□
		화	SET 1 (가) 이육사, 「교목」 / (나) 김명인, 「너와집 한 채」 / (다) 유몽인, 「산우정기」 SET 2 (가) 김소월, 「산 위에」 / (나) 나희덕, 「산속에서」	P.120 P.124	P.47 P.49	
		수	SET 1 작자 미상, 「토공전」 SET 2 이강백, 「동지선달 꽃 본 듯이」	P.126 P.128	P.51 P.52	
		목	SET 1 (가) 홍정유, 「동유가」 / (나) 작자 미상, 「부소산 저문 비에~」 SET 2 (가) 노명선, 「천풍가」 / (나) 이현보, 「어부단가」 / (다) 홍대용, 「의산문답」	P.132 P.134	P.53 P.54	
		금	SET 1 작자 미상, 「이대봉전」 SET 2 (가) 김관식, 「거산호 2」 / (나) 김광규, 「상행」	P.138 P.140	P.56 P.57	
	PART 2	주말	월광 문학 모의고사 4회차 1-3 (가) 이육사, 「꽃」 <수특 출제 작품> / (나)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수특 출제 작가> 4-7 양귀자, 「방울새」 8-13 (가) 임제, 「잠령민정」 / (나) 김춘택, 「별사미인곡」 / (다) 김진섭, 「생활인의 철학」 14-17 작자 미상, 「황새결승」 <수특 출제 작품>	P.171	P.81	□



정제후이

INTRO

수능 국어 문학
비연계 · 연계 대비법

수능 국어 문학 비연계 · 연계 출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들어가며

EBS 수능 교재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연계율이 50%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절반 정도는 연계 교재에서 접하지 않은 낯선 내용이 출제된다는 말이다. 연계 작품은 학습해야 할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차근차근 공부하면 되지만, 비연계 작품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익숙한 작품이 출제되기를 기대하며 문에 맡길 수만은 없다. 최근 5년간 수능 국어 문학에 출제된 작품을 분석해 보고 비연계 · 연계 문학 작품 출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학습 방향을 알아보자.

1 2022학년도~2026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 출제 작품

비연계 작품 / 연계 작품

	갈래복합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2026학년도 수능	(가) 이시영, 「그리움」 (나) 고재중, 「김나무 그늘 아래」 (다) 이이, 「최립에게 주는 글」		박태순, 「독가촌 풍경」	(가) 구강, 「복새곡」 (나) 작자 미상, 「이 시름 저 시름 여러 가지 시름～」 (다) 작자 미상, 「강원도 설화지를～」	작자 미상, 「수궁가」
2025학년도 수능	(가) 장석남, 「배를 밀며」 (나) 허수경, 「흔자 가는 먼 집」 (다)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가) 작자 미상, 「갑민가」 (나) 작자 미상, 「녹양방초 언덕에～」	작자 미상, 「정을선전」
2024학년도 수능	(가) 김종길, 「문」 (나)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다) 유한준, 「잇음을 논함」		박태원, 「골목 안」	(가) 김인경, 「일동장유가」 (나) 유박, 「화암구곡」	작자 미상, 「김원전」
2023학년도 수능	(가) 이황, 「도산십이곡」 (나) 김득연, 「지수정가」 (다) 김훈, 「겸재의 빛」	(가) 유치환, 「채전」 (나) 나희덕, 「음지의 꽃」	최명희, 「쓰러지는 빛」		조위한, 「최척전」
2022학년도 수능	(가) 이육사, 「초가」 (나) 김관식, 「거산호 2」 (다) 이육, 「담초」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가) 정훈, 「탄궁가」 (나) 위백규, 「농가」	작자 미상, 「박태보전」

2 수능 국어 문학 출제 경향 및 고난도 문항 분석

1) 갈래복합과 현대시

☑ 출제 포인트

최근 5년간 수능 국어 문학 갈래복합 영역에서는 운문 두 작품과 산문 한 작품이 한 세트로 구성되었으며, 운문 두 작품 중 한 작품이 연계 출제되었고 나머지 운문 한 작품과 산문 한 작품은 비연계 출제되었다. 갈래복합 영역의 정답률은 다른 영역에 비해 대체로 낮은 편인데, 오답률이 특히 높았던 문항을 분석해 보면 비연계 산문(수필)을 다룬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갈래복합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수능

EBS 비연계 작품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문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줍이 쳐.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늬이 북극을 꿈꾸는데
늬은이는 늬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 이육사, 「초가」 -

EBS 연계 작품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EBS 비연계 작품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풀 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테 뻗뻗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낡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낡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찳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옥, 「담초(談艸)」-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정답률 49%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당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눈여겨볼 문제**

2022학년도 수능 국어 23번은 정답률이 약 49%로, 최근 5년간의 기출 갈래복합 문항 중 가장 정답률이 낮다. 정답은 ④번인데, 37%의 수험생들이 정답 대신 ⑤번을 골랐다. ④번과 ⑤번 선지 모두 비연계 작품인 (다)에 대한 내용이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많은 수험생들이 ④번을 적절한 내용으로 잘못 생각한 이유는, 지문에 근거하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다)에서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이 '적당한 분위기'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간 것인데, 그 근거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달리 (다)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풀에,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풀에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내어 두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고 있다는 ⑤번의 진술은 적절하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문학 작품에서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기도 한다는 <보기>의 내용을 ⑤번 선지와 연관 짓지 못하고 (다)에서 글쓰기가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이를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 것만 보고 ⑤번을 잘못된 진술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처럼 외적 준거가 제시된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작품에 적용하여 그 근거를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3) 수능 국어 문학 비연계 · 연계 대비 학습 방법

1 갈래복합과 현대시

비연계 출제 대비

-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작가의 다양한 현대시 작품을 학습해 두자. 다만 이를 통해 해당 작품에 대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스스로 감상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 비연계 산문 작품 출제에 대비하여 수필에서 작품의 주제와 글쓴이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훈련을 충분히 해 두자.
- 여러 갈래가 함께 구성된 갈래복합 영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작품이 공유하는 내용상, 표현상의 특징을 연결 지어 사고하는 연습도 병행해야 한다.

연계 출제 대비

- 연계 작품임을 감안하여 작품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만큼, 연계 작품은 단순한 내용 이해를 넘어 밀도 있게 학습해 두어야 한다. 수능 전까지 작품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해당 작품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 보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2 현대소설

비연계 출제 대비

- 수년간 비연계 출제된 영역이므로,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자주 다룬 작가의 현대소설 작품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생소한 작품이 출제되어도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으므로 평가원 기출 분석을 통해 지문 구성 방식, 문제 출제 방식, 선지의 서술 방식 등을 익혀두면 도움이 된다.
- 자주 출제되는 서술상의 특징, 작품 속 시대상 등에 관해 배경지식을 쌓아 두자. 이는 실전에서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해 주고 정답률을 높여 준다.

연계 출제 대비

- 현대소설도 연계 출제를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연계 교재에 수록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은 물론, 작품의 전체 줄거리와 주제 의식, 인물 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3 고전시가

비연계 출제 대비

- 정철, 박인로, 윤선도의 작품 등 고전시가 필수 작품은 반드시 학습해 두어야 한다. 작품이 재출제되기도 하고 유사한 주제 의식을 다룬 작품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빈출 작품 학습을 통해 고전시가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표현상의 특징, 주제 의식 등을 익혀두면 낯선 작품이 출제되어도 수월하게 작품의 해석을 할 수 있다.

연계 출제 대비

- 고전시가는 한 작품 이상 연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연계 작품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다. 현대시와 달리 연계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출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작품 전반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 최근에는 낯선 고전시가가 비연계 출제되기도 하므로 전형성을 벗어난 주제를 다룬 작품, 다양한 계층이 창작한 작품 등을 폭넓게 학습하는 것이 좋다.

4 고전소설

비연계 출제 대비

- 현대소설에 비해 등장인물이 많은 편이라 인물 관계가 복잡하며 동일 인물을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인물 관계를 파악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 어휘의 의미를 몰라 지문 이해나 선지의 정오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전소설을 학습하면서 뜻을 모르는 어휘가 등장하면 그때그때 뜻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 연계 작품과 유사한 주제를 다른 작품을 살펴보면 실전에 대비한다.

연계 출제 대비

- 최근 5년간의 수능에서 모두 연계 출제되었으나, 연계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도 지문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작품의 전체 줄거리와 중심인물의 특징을 파악해 두어야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연계 대비 학습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연계 교재와 동일한 부분이 출제되더라도 판본에 따라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선지가 까다롭게 구성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연계율과 난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학습해야 한다.

비연계 작품 중 어떤 것이 출제될지를 예측하며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작품 분석력과 선지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연계 작품이나 평가원 기출 작품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낯선 작품을 스스로 분석하고 정오답의 근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길러진다. 따라서 연계 작품과 비연계 작품 학습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며, 이 두 가지 모두 기출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지문과 <보기>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한편, 실전에서는 익숙한 연계 작품의 분석 방식을 활용해 비연계 작품에 접근하는 것이 비연계 작품을 대하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연계 작품 학습과 기출 분석이 충분히 되었다면, 월광 PART 1에서 다양한 비연계 제작 문항을 살펴보고 자신의 작품 분석 및 선지 판단 역량을 점검해보자. 이어서 PART 2를 통해 비연계·연계 작품으로 구성된 실전 문항 모의고사를 풀며 시험 운용 능력을 기르고 실전 감각을 다지면 된다.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기 피비린 옥루(玉樓)를 헐고
따사한 햇살에 익어 가는
초가삼간을 나는 짓자.

없는 것 두고는 모두 다 있는 곳에
어쩌면 이 많은 외로움이 그물을 치나.

허공에 박힌 화살을 뽑아
한 자루 호미를 베풀어 보자.

풍기는 흠냄새에 귀 기울이면
뉘우침의 눈물에서 꽃이 피누나.

마지막 돌아갈 이 한 줌 흙을
스며서 흐르는 산골 물소리.

여기 가난한 초가를 짓고
푸른 하늘이 사철 넘치는
한 그루 나무를 나는 십자.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쩌면 이 많은 사랑이 그물을 치나.
- 조지훈, 「흙을 만지며」 -

(나)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 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운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떡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운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①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 정호승, 「운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

(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風霜)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였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경이였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중략)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광리에서만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산관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 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의 한을 달래 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솔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

구나 소나무는 고절(高節)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의 곶은 등치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곶은 지조를 읽어 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가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 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侵襲)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 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①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의도적으로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5. (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피비린 옥루'는 화자가 '초가삼간'을 짓기 전에 머무르던, (다)의 '소광리의 솔숲'은 글쓴이가 문명사회를 벗어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공간이다.
- ② (가)의 '이 많은 외로움'은 물질적 궁핍으로 인해 힘들어하던 화자의 처지를, (다)의 '온 산천의 아우성'은 자연을 훼손하는 문명사회의 폭력성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 ③ (가)의 '흙냄새'는 화자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뒤우치게 하는, (다)의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은 글쓴이에게 솔숲을 예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④ (가)의 '한 그루 나무'는 화자가 머물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의 '외딴섬에 갇힌 '남산의 소나무들'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불가능함을 드러낸다.
- ⑤ (가)의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은 화자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의 '엄한 스승'은 자신의 고민에 공감하지 못하는 '당신'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을 드러낸다.

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누구에게나 일상 경험에서 스스로의 위선적 태도를 깨닫는 순간이 있다. 평소 자신이 가졌던 삶의 지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다.

- ① '나는 왜' 구두에 '오줌을 싸 놓은'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에서, 일상적 체험이 화자에게 반성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나는군.
- ②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다녔던 행위는, 강아지에게 '소리치고 '구두를 내던지는' 행위와 대비되어 화자의 자책감을 심화시키는군.
- ③ '개나 사람이나' 동등하다고 말하면서 '산에 개를 데려온 '사내'와 '떡살잡이'를 한 것에서, 화자의 위선적 태도가 드러나는군.
- ④ '윤동주 시인'이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늘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군.
- ⑤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은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일상적 체험에서 비롯된 반성이 삶 전체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7. ㉠과 ㉡을 참고하여 (나)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화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보다 '강아지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 ② ㉡의 글쓴이는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밀어내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 ③ ㉠의 화자는 강아지를 '견디지 못하'는 자신의 태도를 개선할 것을, ㉡의 글쓴이는 '술방울들이 싹을 키울' 수 있도록 황폐한 땅을 가꿀 것을 다짐하고 있다.
- ④ ㉠의 화자는 자신을 피해 '의자 밑으로' 숨은 강아지에게 안쓰러움을, ㉡의 글쓴이는 소나무가 '노기'를 뺏어 '사람을 해'친다는 이야기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다.
- ⑤ ㉠의 화자는 '먼저 나를 용서'하는 강아지보다 옹졸한 자신의 모습에, ㉡의 글쓴이는 현대 사회의 '비정한 논리'에 장악된 자연의 모습에 괴로워하고 있다.

8.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의 글쓴이는 소나무의 생태를 현대인의 삶과 대비하면서, 무차별적인 소비의 굴레에 매여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온 전통적 가치를 망각한 경쟁적인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한편 척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사람이 '소비의 주체'였다가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 했다고 말하는 것은, 소비에 매몰되어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술가지'로 만든 부적이거나 '소나무 관'을 상품화의 예로 제시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자연을 물질적 가치로 여기는 현대 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③ '금강송'뿐 아니라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곧은 지조를 잃어' 내는 것에서, 소나무에서 정신적 가치를 발견했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은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무한 경쟁의 현대 사회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글쓴이의 따뜻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
- ⑤ 산을 나오며 '술방울'로 인해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신화' 속 '소년'을 떠올리는 것에서, 글쓴이가 메마른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희망적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PART 2

월광

문학 모의고사

제 1 교시

국어 영역(문학)

[1회차]

정답과 해설 P.60

1 주 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혈룡은 다시 울먹이는 말로,
 “이 몸쓸 김진희야, 내가 지금 푼전의 노자가 없으니 멀고 먼 서울 길을 어찌 돌아가라.”
 하니, 김 감사는 노발대발,
 “이 미친놈 봤나.”
 호통을 치면서 사공을 불러 ㉠엄명하였다.
 “이놈을 배에 싣고 가서 강물 한가운데 던져라.”
 이에 사공들이 영을 받고 물러나와 이혈룡을 묶어서 배에 실을 때에 연회장에 있던 옥단춘이 넋지시 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감사에게 ㉡거짓말하여 고하기를,
 “소녀 지금 오한이 일어나며 온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감사가,
 “그러면 물러가서 치료하라.”
 하였다. 옥단춘이 물러나와서 사공을 급히 불렀다.
 “저기 가는 저 사공들, 잠깐 기다리시오.”
 하니 사공들이 머무르거늘 옥단춘이 하는 말이,
 “내 이 양반의 몸값을 후하게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인 듯이 모래를 덮어서 숨겨 두고 오시오.”
 하였다. 옥단춘의 부탁을 받은 사공들이,
 “아무리 사포 영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고 사공들이 이혈룡을 배에 싣고 만경창과 깊은 물에 동기동실 떠나갔다. 혈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속절없이 죽는 줄로만 알고 하늘을 우러러 방성통곡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옥단춘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이혈룡은 과거에 장원 급제한다. 암행어사가 된 이혈룡은 신분을 숨긴 채 김진희 앞에 나타나고, 김진희가 자신과 옥단춘을 죽이려 하자 신분을 밝힌다.

어사또가 분부하기를,
 “너희들 들어라! 남의 막하에 있어 관장이 악한 정사가 있거든 착한 길을 권할 것이어늘, 도리어 악한 것을 권하니, 무죄한 백성이 어찌 편히 살며, 양반이 어찌 도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고 비장들에게 호통을 쳤다. 형벌 제구와 숙정패(肅靜牌)를 내어놓고, 팔십 명 나졸 중에서 날랜 놈 십여 명을 골라서 형장을 잡게 하고 엄하게 호령하였다.
 “너희 놈들, 매질에 사정을 두면 죽고 남지 못하리라.”
 대상의 호령이 지엄하니 누가 상쾌치 않을까. 곤장 옥십대씩 때려서 큰칼을 씌워 옥에 가두고, 김 감사를 붙잡아 들일 때 서리나 역졸들이 호령을 받들어 물러나와 감사의 상투를 거머쥐고 끌어내어,

“평양 감사 김진희 잡아들였습니다.”
 하고 복명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듯하였다. 어사또가 감사를 당장에 ㉢봉고파직하였다. 이혈룡은 옛일을 생각하니 슬픈 생각도 솟아나고 분한 마음 또한 측량할 수 없었다. 엄명을 받은 나졸들은 형구를 갖추어 형틀 위에 달아매고 팔십 명의 나졸과 서리 역졸이 좌우로 나열하여 어사또의 영을 기다렸다. 형장 든 놈, 곤장 든 놈, 능장 든 놈, 태장 든 놈이 각각 서로 골라 들고 팔을 걷어 올리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어사또가,
 “여봐라, 김진희야! 너는 나를 자세히 보라. 나 이혈룡을 지금도 모르겠느냐. 천하에 몸쓸 김진희 놈아. 너와 내가 전일에 사생동거를 맹세하고 공부할 적에, 성은 서로 다를망정 대대로 친구의 두 집안이요 그 정의를 생각하면 동태동골인들 이에서 더하겠는가? 그 시절에 우리가 맹세하기를 네가 먼저 귀하게 되면 나를 살게 해 주고, 내가 먼저 귀하게 되면 너를 살게 해 달라고 네 입으로 맹세했지 내가 먼저 하자 했더니. 마침 내가 먼저 등과 하여 평양 감사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옛일을 생각하여 태산같이 맺은 ㉣언약이 있었기에 혹여나 도와줄까 하고 너를 찾아가려 하였으나 푼전 노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나의 아내가 첫 근친 갈 때에 입었던 옷을 팔아 준 돈을 가지고 너를 찾아 평양까지 왔었다. …(중략)… 거지꼴로 전전걸식 다닐 적에, 네가 마침 대동강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논다는 소문을 듣고, 그날 너를 만나 볼까 하고 근근이 틈을 타서 네가 노는 근처를 찾았었다. 배반이 낭자하고 음식이 푸짐하고 풍악이 광장할 제 굶주린 내 구미가 얼마나 동했겠느냐. 네가 그때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이라도 조금만 주었으면 너도 생색내고 나도 좋았을 것을, 너는 나를 모른 체하고 미친놈이라고 배에 실어다가 대동강 물속에 넣어 죽이려 했으니 그 무슨 까닭이냐. 이 악독한 김진희 놈아! 바른 대로 고하여라!”
 하고 추상같이 호령하니, 좌우의 나졸들이 벌떼같이 달려 들어서 육칠월 번개같이 투드락 탁탁 한참 치는 것이었다. 그러니 김 감사가,
 “애고애고, 어사또님 제발 적선 살려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을 때가 되어 저도 모를 귀신이 시켜서 그랬사오니, 죽고 사는 것은 어사또 처분입니다. 죽을죄를 지은 놈이 무슨 말씀 하오리까.”
 하는 것이었다. 어사또가 듣고 있다가 또 호령하기를,
 “네 이놈, 나쁜 아니라 죄 없는 옥단춘까지 나와 함께 죽이려 한 것은 또 무슨 까닭이냐. 네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살려 둘 수 없도다.”

하였다. 어사또는 여기서 사공들을 불러 분부하기를,
 “너희들, 이놈을 전의 나처럼 배에 싣고 대동강 깊은 물에
 던져 버려라!”
 하니 사공들이 ㉠어사또의 영을 듣고 김진희를 끌어다 배
 에 싣고 만경창과 물 위로 등등 떠나기 시작하였다. 이때
 어사또가 어진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저놈은 제 죄로 죽을망정 **윗대의 의리를 생각하고 옛정을
 생각하면 나 또한 저와 같이 차마 죽일 수가 없구나.**”
 하고 나졸 한 놈을 급히 불러서 분부하기를,
 “너는 급히 배에 가서 그 양반을 물속에 한참 넣었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도로 건져서 배에 싣고 오너라.”
 - 작자 미상, 「옥단춘전」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②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열거의 방식으로 인물의 외양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발화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공들은 옥단춘의 부탁에도 사또의 지엄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이혈룡은 상관을 올바르게 보필하지 못한 비장들을 잡아서 매질하고 옥에 가둔다.
- ③ 옥단춘은 김진희를 만나러 평양에 가는 이혈룡에게 옷을 팔아 여비를 마련해 준다.
- ④ 이혈룡은 김진희에게 먼저 출세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자고 제안한다.
- ⑤ 이혈룡은 김진희가 잔치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자신에게 준 것에 대해 서운하게 여긴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옥단춘전」은 친구 사이인 두 인물의 대립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데, 각 인물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상반된다. 주인공에게 적대적인 인물은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친구와의 신의를 경시한다. 반면 주인공은 자신의 권력을 불의를 응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며, 친구와의 신의를 중시한다. 한편, 여성 인물은 주인공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주인공을 위기에서 구하거나 그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 ① 이혈룡을 ‘배에 싣고 가서 강물 한가운데 던지라고 사공에게 명하는 것에서, 친구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이용하는 김진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이혈룡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사공에게 ‘이 양반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여 그의 목숨을 구하는 것에서, 옥단춘이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춘 조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암행어사가 된 이혈룡이 비장들에게 ‘무죄한 백성’들이 ‘편히 살’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이혈룡이 백성들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어사또의 호령에 ‘저도 모를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는 것에서, 이혈룡의 처분에 반발하며 자신의 죄를 남의 탓으로 전가하려는 김진희의 비겁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⑤ 이혈룡이 ‘윗대의 의리를 생각하고 옛정을 생각’하여 김진희를 죽이지 않으려 하는 것에서, 김진희와 달리 이혈룡은 친구간의 신의를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혈룡은 ㉡으로써 양강음을 하려 한다.
- ② 김진희가 ㉢을 곧이곧대로 믿음으로써 ㉠의 실행을 가로막는 계기가 마련된다.
- ③ 이혈룡에 의해 ㉢을 당한 김진희는 이혈룡과 맺었던 과거의 ㉡을 언급하며 목숨을 구걸한다.
- ④ 이혈룡은 ㉡에 기대를 걸고 김진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에 가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 ⑤ 옥단춘은 ㉡이 벌어지는 중에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을 활용한다.

2027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 N제

어 과 광



PART 1 2주차 빠른 정답

월 SET ① 1. ③ 2. ③ 3. ②

SET ② 4. ② 5. ④ 6. ⑤

화 SET ① 1. ⑤ 2. ④ 3. ③ 4. ② 5. ⑤

SET ② 6. ⑤ 7. ③ 8. ②

수 SET ① 1. ④ 2. ⑤ 3. ⑤

SET ② 4. ⑤ 5. ④ 6. ② 7. ④

목 SET ① 1. ③ 2. ④ 3. ④

SET ② 4. ④ 5. ② 6. ①

금 SET ① 1. ④ 2. ⑤ 3. ②

SET ② 4. ⑤ 5. ④ 6. ①

월요일 SET ①

✓ 문제 P.060

1. ③

‘숙영 남자가 눈을 부시시 뜨고 좌우를 둘러보았다. 이것을 본 시 부모와 선군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라는 서술을 통해, 숙영 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자 선군과 선군의 부모가 모두 기뻐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선군은 ‘매월의 목을 베고’, ‘불량배 돌이를 본읍에 넘겨서 먼 절도로 귀양보내게 했으므로, 매월뿐 아니라 돌이에게도 책임을 물어 처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선군의 부모는 며느리가 불행을 당한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일이 이같이 밝혀지자 도리어 무색해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는 서술을 통해, 선군의 부모는 선군에게 숙영의 상황을 아는 대로 전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선군은 부모가 과거에 응시하라고 권유하자, ‘만일 제가 과거를 보려고 집을 떠나면 남자와는 수개월 동안의 이별이 되겠으니 사정이 절박합니다.’라고 하며 과거 응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후 숙영 이 ‘남아가 세상에 나면 입신양명하여 부모께 영화를 보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득하자, 선군은 이를 받아들여 과거 길에 오르게 된다. 이렇듯 과거 길에 오른 것은 남자의 말을 따른 것이므로 선군이 남자 보다 부모를 우선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숙영은 ‘낭군의 도량으로 내 원수를 갚아 주시니, 그 은혜 결코보은하여도 오히려 부족하옵니다.’라고 말하며, 선군이 원수를 갚아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나, 선군의 부모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2. ③

[A]에서 숙영은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니 ‘상례를 지내지 마시고 며칠만 더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숙영이 곧 다시 살아날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앞으로 새로운 위기를 겪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 숙영은 옥황상제가 ‘삼 년 기한을 어기고 십 년을 앞당겨서 미리 인연을 맺었던 탓으로 인간에 내려가서 애매한 일로 비명횡사하게 되었’음을 일러 주었다고 했으므로, 현재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A]는 선군의 꿈에 죽은 숙영 남자가 등장하여 한 말로, 천상의 옥황상제, 염라왕, 남극성(사람의 수명을 맡아보는 별), 석가여래 등 초월적인 존재들을 언급함으로써,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A]의 ‘천상의 옥황상제께서 조회 받으실 때, 저를 불러 꾸짖어 말씀하시되, ‘네 선군과 자연 만날 기한이 있는데~누구를 한탄하겠느냐.’ 하시기에’, ‘옥황상제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시신에게 분부하시기를, ‘숙영의 죄는~인연을 있게 하라!’ 하시고’ 등의 서술을 통해, 숙영이 옥황상제의 말을 인용하여 선군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A]의 ‘염라왕이 여쭙기를, ‘분부대로 하겠사오나, 이틀만 더 지낸 후에 세상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하니 옥황상제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 하셨습니다.’에서 숙영은 타인에게서 들은 말을 전하고 이를 근거로 ‘상례를 지내지 마시고 며칠만 더 기다리’라고 말하며 선군이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것만은 꼭

• **초월적:** 어떠한 한계나 표준, 이해나 자연 따위를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3. ②

숙영은 ‘입신양명하여 부모께 영화를 보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며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 낭군은 재삼 생각하여 빨리 과거 행장을 차리고 상경해서 남의 비웃음을 사지 않게 하십시오.)에서 ‘남의 비웃음을 사지 않게 하’리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고려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숙영이 유교적 가치관보다 세간의 평가를 중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는 선군은 숙소에서 '입신양명을 통한 충·효의 실천'과 상반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부여받으며, 이러한 금기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규범'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무엇이 부족해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아치가 되기를 바라십니까?)에서 선군은 부모의 과거 응시 권유에 대해 반문하며, 입신양명을 중시하는 당대의 사회 규범에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 ③ <보기>에서는 숙영이 '여인의 정절'과 상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부여받았다고 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숙영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모함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성인도 숙소에 노닐며, 숙녀도 험한 구설을 만났은 고왕금래에 없지 않은 불행 일지나, 이번 남자같이 지원극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으리요.)에서 선군은 숙영이 '험한 구설'을 만났다고 말하며 그녀의 불행한 처지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숙영은 타인에 의해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에서는 '금기를 어기는 등장인물의 행위'에 '당대의 사회 규범과 대립하는 작품 향유층의 근원적 욕망'이 반영된다고 하였다. ㉢(다만 나 선군이 죽어서 지하에 가서 남자를 따를 것이니, 부모에게 불효가 되으나, 어찌할 수 없소이다.)에서 선군은 '부모에게 불효가 되'더라도 '죽어서 지하에 가서 남자를 따'르겠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윗글이 효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보다 남녀 간의 애정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작품 향유층의 근원적 욕망을 반영함을 보여 준다.
- ⑤ <보기>에서는 '금기를 어기는 등장인물의 행위는 이야기에 개연성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삼 년 기한을 어기고 십 년을 앞당겨서 미리 인연을 맺었던 탓으로 인간에 내려가서 애매한 일로 비명횡사하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한탄하겠느냐.)에서 숙영은 자신과 선군이 '기한을 어기고 십 년을 앞당겨서 미리 인연을 맺었던 탓'에 비극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초월적 세계가 부여한 금기를 어긴 결과로, 숙영이 겪은 사건의 발단이 되므로, 서사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월요일 SET 2 ✓ 문제 P.064

4. ②

(나)에서는 '뭉무게'를 늘리기 위해 소에게 '물'을 먹이는 상황이 제시된다. 이때 '들어온다', '채워 버린다' 등의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강제로 물을 마셔야 하는 소의 상황을 실감 나게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따뜻한 핏방울', '표범과 늑대', '하얀 꽃 피는 약초'와 같이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지는 않는다.
- ③ (가)는 '몰이꾼의 날카로운 소리', '쇠북 소리'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나)는 '음매에 슬픈 울음'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이는 대상의 비극적 처지를 강조하는 것이지, 대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가)의 '나 어린 사슴은 보았다 / 오늘도 몰이꾼이 메고 오는 / 표범과 늑대.'와 (나)의 '보인다 가족 속에 / 우연히 들어와 무계가 된 한 줄기 바람'에서 도치된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타개해 나가려는 화자의 적극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가)는 '죽은 이로 하여금 / 죽는 이를 묻게 하라.'에서 명령형 어조를 사용했을 뿐 청유형 어조를 사용하지 않았고, (나)도 대화적 어조를 사용하지 않았다.

! 이것만 꼭

• **도치:** 문장 성분의 정상적인 배열 순서를 바꾸어 놓는 표현 기법. 이를 통한 강조의 효과가 있음.

5. ④

<보기>에 따르면 (가)는 '어미의 회생을 바라는 산짐승의 심정을 상사하여 그들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드러낸다.' '어린 사슴'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미의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를 생각하고 있으므로,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은 위기에 빠진 산짐승이 갈구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기>에 따르면 (나)는 '인간이 가족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가족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장면에 주목'하여 이러한 '부정적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가족이 느낄 '괴로움과 무력감'을 포착한다. (나)의 '한 줄기 바람'과 '한 방울 물 한 모금 공기'는 모두 소의 체내에 들어가 '무게'나 '고기'가 된 대상으로, 생명을 가진 소를 '무게'를 젖 '고기'로만 여기는 부정적 현실을 부각한다. 이때 '물'은 오히려 소의 괴로움을 더한 대상이며, (나)에서는 소가 겪는 부정적 현실과 이로 인한 소의 무력감이 드러날 뿐, 소가 특정한 대상으로부터 위안을 얻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 따르면, (가)는 '인간이 산짐승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비정한 행위에 주목'한다. (가)의 '밤 이슬처럼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인간이 산짐승을 잡기 위해 밤이 깊도록 사냥을 계속하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산짐승들에게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② <보기>에 따르면, (나)는 '가족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가족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는 장면에 주목'한다. 이때 (나)의 '울음은 이제 형식적으로 입만 크게 벌리고 있다'는 '물'이 '목구멍'을 가득 '채워' 소가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만 크게 벌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가족이 더 이상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③ <보기>에 따르면 (가)는 '인간이 산짐승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비정한 행위에 주목'한다. 이때 '몰이꾼'에게 사냥당한 산짐승인 '표범과 늑대'는 인간에게 해를 입은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기>에 따르면 (나)는 가족이 느낄 법한 '무력감을 포착'하여 인간의 폭력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이때 '눈알 가득 앓은 간지러운 파리 떼'를 '날려 보낼 수 없'는 소의 모습에서 무력감을 확인할 수 있다.

PART 2 2회차 빠른정답

1. ② 2. ③ 3. ④ 4. ④ 5. ③ 6. ③

 7. ⑤ 8. ② 9. ⑤ 10. ⑤ 11. ④ 12. ③

 13. ① 14. ② 15. ① 16. ④ 17. ③

1. ②

'나'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려는 '버스' 안에서 '넷이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삼박사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여정을 시작한' 것을 다행스럽게 느낀다. 이어 '서울서 살다 보면~수월치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각자 먹고살기에 바쁜 서울 생활 속에서는 여유를 내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나'의 인식을 보여 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주인이 '이번에도 찬이 변변치 않다고 노상 같은 말을' 하자, '우리는 '조금도 그런 생각 마시라고' 하며 '되레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리가 '아침이나 어젯밤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기는 하지만, 이는 주인의 태도가 아닌 시골 생활에 대한 반응이며 '나'가 주인의 변함 없는 태도에 불편한 감정을 표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우리는 우리가 자란 그런 두메에 언젠가는 내려가자.'에서 '우리가' 서울에서 살기 이전에 시골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뒷글에서 여행을 통해 겪게 된 시골의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우리는 시골 생활이 하루 이상 지속되자 더 이상 신명을 느끼지 못하고, 시골에서는 쉽게 누릴 수 없는 커피나 텔레비전 쇼 등을 그리워하며 도시에서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호화로운 생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도시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누리던 일상적 편의나 오락에 가깝다. 또한 '우리는 너무 소시민적인 안일에 젖어 있었'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인물들이 스스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 왔다고 여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⑤ '이번에 내려가면 그럴 만한 야산이라도 추렴해서 사두는 게 어떨겠느냐는, 진담 반 타산 반의 약속까지 하고 온 터였으나 막상 현지에 와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에서 '나' 또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야산을 사두자는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③

㉠(설레임)은 서울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가 시골 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그리움을 품고 계획한 여행이 실제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아직 시골 생활을 직접 경험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은 시골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겁)은 윤경수가 실제 시골 생활을 경험한 뒤, 그 생활이 기대와 달리 불편하고 갑갑하다고 느끼는 모습을 바탕으로 '나'가 유추한 감정이다. 따라서 ㉡은 시골 생활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통해 나타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시골 생활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갑갑하게 느껴지는 데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앞으로 펼쳐질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 것에 대한 감정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뒷글에서 애초 여행 계획이 한 사람쯤 빠질 것을 전제로 세워졌다고 볼 만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 ② ㉠은 서울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상황에서 '나'와 일행들이 함께 느끼는 감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갑갑하지만 하다고 윤경수도 말했다. 그는 더 말은 안 했지만 서울서 떠나갈 때의 마음과는 달리~겁(㉡)을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를 참고하면 ㉡은 윤경수가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나'가 추측한 감정이다. 따라서 ㉡을 '나'가 느끼게 된 감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은 서울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상황에서 발생한 감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자신의 생활이 다시 서울 생활로 끌어내려질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은 윤경수가 시골 생활을 실제로 경험한 뒤, 익숙하고 편리한 서울에서의 삶이 '막상 그 속에 파묻혀 보니까 갑갑하지만' 한 시골 생활 쪽으로 끌어내려질까 봐 걱정하는 데서 드러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나'와 일행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여행을 떠난 뒤에는 '설레임(㉠)'을 느낀다. 이때 ㉠은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과 상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은 시골 생활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것에서 기인한 감정이다. 바라던 시골 밥상에 '어젯밤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는 모습은 시골 생활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가는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므로 ㉡과 상반되는 감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④

㉢("말 마라. 사장한테 겨우 후라이를 쳐서 휴가를 얻고 나니깐 이번엔 여편네가 잔뜩 의심을 하지 않겠니? 출장은 느닷없이 무슨 출장이냐 이거야. 그걸 돌려대느라고 혼났다. 겨우 빠져 나왔어.")에서 인물은 '출장은 느닷없이 무슨 출장이냐 이거야. 그걸 돌려대느라고 혼났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친구들과의 여행을 출장이라고 말하며 거짓으로 구실을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야, 멀쩡한 놈이 갑자기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혼났다. 교감에 집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느냐고 그러기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복잡한 일이 생겼다고 사정사정했지 뭐.")에서 인물은 교감에게 여행 이야기는 꺼내지 않은 채 집에 '좀 복잡한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으므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심정을 호소했다고 볼 수 없다.

수능 국어 문학
제작 문항 N제

월광



수능 국어 문학 **비연계 출제** + **EBS 연계 출제**까지 **완벽 대비**

- ▶ 『월광』은 수능 국어 문학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 검증된 213개의 문학 제작 문항을 통해 2027학년도 수능 국어 시험을 대비하는 실전 문제 풀이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 ▶ **PART 1** 4주 동안 주중에 매일 두 세트씩 비연계 작품을 다룬 수능형 제작 문제를 풀며, 낯선 작품 출제에 대비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 ▶ **PART 2** 평가원의 최신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한 문학 모의고사 4회분을 풀며, 실전력을 높이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정답과 오답 선택지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문학 개념어 학습 장치를 활용하여 혼자서도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도서출판 홀수



2014년

도서출판 홀수
설립 연도



340종

도서출판 홀수가
발간한 책 종수



200년↑

도서출판 홀수 직원들이
수능 국어를 연구한
시간의 총합



10년

끊임없는 개정과 개선으로
홀수 기출 시리즈의
완성도를 높여 온 시간



150만 부

도서출판 홀수
교재 누적 판매량



10만 건↑

홀수 기출 제작 시
참고한 수험생들의
Q&A 개수



1억 원↑

홀수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지원한 금액



5,037명

홀수의 후원을 통해
마음이 건강해진
청소년의 수

정가 28,000원
ISBN 979-11-94350-52-1

